

現行 Romanization 의 問題點

— 道路標識의 英字化 —

白 文 圭
(助 教 授)

1. 序 論	5. MOE 2 안(1959)의 問題點
2. 로마字表記의 目的	5-1 ㄱ/ㅋ / ㅌ/ㅍ
3. 로마字의 來歷	5-2 ㅈ/ㅊ : eo/eu
4. 로마字表記案의 對照	5-3 받침과 形態音韻論
4-1 M-R 안(1939)	6. MOE 안(1984)의 問題點과 合理
4-2 朝鮮語안(1940)	的 方案
4-3 Lukoff 안(1947)	6-1 ㄱ/ㅋ / ㅌ/ㅍ
4-4 MOE 1 안(1948)	6-2 ㅈ/ㅊ : ㄹ/ㄹ
4-5 Yale 안(1954)	6-3 合理의 方案
4-6 MOE 2 안(1959)	7. 結 論

1. 序 論

오늘날 交通과 通信의 發達로 因하여 世界가 하나의 生活圈으로 變하고, 國家間에 文化의 交流 또한 어느때보다도 緊密해져 가고 있다.

이와같은 交流現象 가운데서 傳達手段으로서 言語의 交流가 必然的으로 隨伴된다. 이世上에서 이웃나라와의 文化接觸없이 存在할 수 없듯이, 또한 이웃나라와의 言語交流없이도 存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言語든 靜的인 狀態에 머물 수는 없다. 아울러 言語觀에서도 “主觀的 見解로서가 아닌 科學的, 國際的 普遍性”

(최현배 1961:693)을 지녀야 한다.

言語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다른나라 말과의 사이에서 서로 往來하는 性質을 지니고 있어 高度의 文化를 지닌 나라의 言語가 文化水準이 낮은 나라의 言語로 흘러들어가기도 하고, 反對로 낮은 나라의 言語가 높은 나라의 言語로 逆流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言語現象 가운데 하나가 「文字의 交流」이다. 여기에는 「한글化」(Koreanization)와 「로마자字化」(Romanization)를 生覺할 수 있다.

前者는 外來語의 한글表記로서 外國語의 國語化를 意味한다.

外來語表記는 外來語表記法統一案(한글맞춤법통일안 60項)에 따라 “새 글자나 符號를 만들어 쓰지아니하고 國語表記의 한글 字母만으로 적는다”라고 쓰여있다.

다시말해서 現行 24字만을 使用하여 自國語의 音韻體系에 融合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外來語表記는 아직 統一이 안된 狀態에서 여러가지의 亂脈相을 보이고 있어 文敎部의 語文政策에서 解決해야 할 國家的인 課題임을 否認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外來語表記는 로마字表記와 함께 論難과 混亂속에 있어온게 事實이다.

그리하여 學校敎科書는 敎科書대로, 言論系는 言論系대로, 一般刊行物은 刊行物대로 각기 달리 表記하고 있어 學生이나 言衆들은 어디에 그 基準을 두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New York 表記만 보아도 뉴우요오크(文敎部), 뉴욕(國語國文學會), 뉴요크(한글學會) 등으로 表記되고 있다. 이와같은 外來語表記上的 亂脈相은 「세칙」이 너무 복잡하고, 또 一律的으로 適用하기에는 現實感覺에 맞지않은 데서 起因된다고 生覺된다.

한편 後者, 즉 로마字化(Romanization)는 어떤가? -이는 本稿에서 다뤄질 項目이다.

우리가 지하철, 고속버스, 기차등을 利用해 旅行을 하다보면 道路標識, 案內標識, 그리고 驛名 등에서 로마字(Romanization)로 表記된 간판을 목격하게 된다.

다행히 內國人的의 경우 表記로 인한 어떤 問題는 없겠으나(言語學者는 除外하고), 한글을 전혀 모르는 外國人이 旅行할 경우 이러한 表記로 야기될지도 모를

問題들을 排除할 수 없다.

예컨대 (1) ‘대전’ Daejon, ‘부산’ Busan, ‘경주’ Gyeongju, (2) ‘강릉’ Gang-reung, ‘독립문’ Dogribmun, ‘설악산’ Seolag Mt. ‘낙산사’ Nagsansa 등.

外國人들의 立場에서 볼 때 그들이 느끼는 두가지 측면—聽覺的 側面과 視覺的 側面—을 生覺할 수 있겠다.

前者, 聽覺的 側面에서 (1)은 ‘대제온’, ‘무우산’, ‘정주’로 들려 發音上 原音과의 거리가 멀고, 後者, 視覺的 側面에서 (2)는 Gang(괘거리)+reung, Dogrib(개늑골)+mun, Seo(죄수)+lag, 그리고 Nag(잔소리)+sansa 등의 意味로 어색하고(awkward), 우아하지 못한 紐앙스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은 (1)과 (2)의 混亂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두가지 表記法의 混用으로 起因된다고 生覺된다. 그중의 하나가 MOE 2안(1959. Ministry of Education. 이하 MOE이라 칭함)이고, 다른 하나는 1939년에 外國人學者에 의한 소위 M-R案(1939. McCune-Reischauer. 이하 M-R이라 칭함)이다. 前者는 國內에서 25年間 學校, 言論系, 政府刊行物, 弘報책자 등에 써왔고, 後者는 外國人의 必要에 의해 考案되어 이미 外國機關 및 國內英字新聞(Korea Times, Korea Herald) 등에서 널리 使用되어 왔다.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1978년에 文敎部는 그 語文政策자문기관인 國語審議會로 하여금 四個語文政策(표준말, 맞춤법, 外來語表記 및 로마字表記) 가운데 우선적으로 로마字表記(Romanization)의 問題點을 分析·檢討케 했고,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 하루속히 地名 및 道路標識板이라도 어색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原音과의 유사성도 살리고, 또한 外國人들의 語感에도 自然스럽고, 간편하고, 편리한 表記로서 그동안 그들이 써오던 M-R 式을 수정·보완하여 「國語의 로마字表記法」을 政府案으로 公布하게 되었다.

이 表記方法도 달라 이에대한 學者들의 意見도 分分하였고 그 結果 約 30여종

1) 배양서(1979:122)의 실험에 의하면 美國人이 발음하는 boy/dog의 첫소리(b/d)를 우리의 國民學校 5學年 아동들은 b/d으로 듣지않고, m/ni으로 듣는 다는 것이다. 例컨대 外國人에게 Busan을 읽힐경우 「무우산」 「무산」으로 듣기쉬우므로 Pusan으로 써서 「푸산」으로 듣게하여 「부산」에 가깝게 들리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의 表記案이 나오게 되었다²⁾(최현배 1961:693).

새로 改正公布된 現 MOE 안(1984)은 外國人의 聽覺影像에 상당히 接近했다고 하겠으나, MOE 2안(1959)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이 그 특징으로 되어있어 內國人이나 外國人들 모두에게 아주 생소하여 發音上 어렵고, 또한 意味의 混同마저 가져오는 結果를 빚게된것도 사실이였다(ex. 淸州 / 定州: Cǒngju/Chǒngju).

따라서 本稿에서 이와같은 表記上의 混亂으로 야기된 道路標識의 實狀을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여러 表記法을 對照分析을 通해서 MOE 2안(1959)과 MOE안(1984)의 問題點을 밝히고, 이에대한 合理的인 代案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로마字表記의 目的

우리말의 音韻體系를 다른 外國語로 表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完璧한 것을 前提로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表記上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道路標識이든 案内看板이든 그 表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for whom?) 하면, 우리 韓國人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外國人을 위한 것일진대, 우리글을 로마字로 表記함에 있어서 어느 言語를 主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Underwood(1972:27)가 지적했듯이 로마字化는 반드시 英字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認識에 英語使用者가 압도적이고 우리말의 대부분의 번역이 英語로, 또한 外國人訪問客의 대부분이 英語를 使用하고 있기때문에 一般人을 위한 ‘標準統一表記法’³⁾은 英語의 音價와 綴字組織-子音表記는 英語音價이고, 母音은 이

2) 김민수(1973:289)는 로마字表記案을 1920年代까지 27個案으로 간주했다.

3) 김충배(1978:75)는 공적인 ‘標準統一表記法’은 一般人을 위한 社會的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음같이 열거했다. : (A) 로마字表記의 目的이 우리말을 못 하거나 읽을줄 모르는 外國人의 Communication의 수단으로 한글보다 로마철자구조의 개념을 쫓아야 할 것이다. (B) 표기가 外國人에게 자연스럽고, 분명해야 하며, 한글을 그대로 로마字로 옮겨적기보다는 原音을 충시해야 한다. (C) 간편해야 하고, 보통

의 表記案이 나오게 되었다²⁾(최현배 1961:693).

새로 改正公布된 現 MOE 안(1984)은 外國人의 聽覺影像에 상당히 接近했다고 하겠으나, MOE 2안(1959)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이 그 특징으로 되어있어 內國人이나 外國人들 모두에게 아주 생소하여 發音上 어렵고, 또한 意味의 混同마저 가져오는 結果를 빚게된것도 사실이였다(ex. 淸州 / 定州: Cǒngju/Chǒngju).

따라서 本稿에서 이와같은 表記上의 混亂으로 야기된 道路標識의 實狀을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잘 알려진 여러 表記法을 對照分析을 通해서 MOE 2안(1959)과 MOE안(1984)의 問題點을 밝히고, 이에대한 合理的인 代案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로마字表記의 目的

우리말의 音韻體系를 다른 外國語로 表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完璧한 것을 前提로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表記上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道路標識이든 案内看板이든 그 表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for whom?) 하면, 우리 韓國人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글을 모르는 外國人을 위한 것일진대, 우리글을 로마字로 表記함에 있어서 어느 言語를 主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Underwood(1972:27)가 지적했듯이 로마字化는 반드시 英字化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認識에 英語使用者가 압도적이고 우리말의 대부분의 번역이 英語로, 또한 外國人訪問客의 대부분이 英語를 使用하고 있기때문에 一般人을 위한 ‘標準統一表記法’³⁾은 英語의 音價와 綴字組織-子音表記는 英語音價이고, 母音은 이

2) 김민수(1973:289)는 로마字表記案을 1920年代까지 27個案으로 간주했다.

3) 김충배(1978:75)는 공적인 ‘標準統一表記法’은 一般人을 위한 社會的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음같이 열거했다. : (A) 로마字表記의 目的이 우리말을 못 하거나 읽을줄 모르는 外國人의 Communication의 수단으로 한글보다 로마철자구조의 개념을 쫓아야 할 것이다. (B) 표기가 外國人에게 자연스럽고, 분명해야 하며, 한글을 그대로 로마字로 옮겨적기보다는 原音을 충시해야 한다. (C) 간편해야 하고, 보통

태리語이지만—을 意識한 表記法이 온당할 것이다.

우리가 英字化(Anglicization) 하면 「한글의 英字化」와 「한국어의 英字化」가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區別해야 한다. 前者는 現行綴字法을 그대로 로마字에 充實하게 옮긴 것이고, 後者는 韓國語의 發音을 옮긴다는 것을 認識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歷史言語學者에게는 前者가 적합하겠고, 實用的인 一般社會用으로는 後者가 합당하겠다.

一般的으로 로마字表記法과 關聯된 表記體系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cf. 이현복 1979:146, 이상억 1981:15-16, 정민섭 1973:302)⁴⁾

- (1) 音聲表記(Phonetic transcription)
- (2) 音韻表記(Phonemic transcription)
- (3) 形態表記(morphonemic transcription)

위에서 音聲表記는 한글을 音聲學的으로 정확하게 그 發音을 表記하는 方法으로 現在 가장 많이 使用되는 國際音聲符號(International phonetic transcription, IPA)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러나 이것은 言語學徒나 言語學者에게는 必要하겠으나, 一般社會用—다음에 詳述—으로 쓰이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表記이다.

종래 사용된 MOE 2안(1959)은 形態表記를 사용함으로써 原語에의 환원성은 잘 나타내고 있으나, 原音과의 괴리현상이 있다. 그리고 音韻表記는 音聲表記와 形態表記의 中間단계이다. 韓國語에는 形態音韻構造가 發達되어 있어 外國語로 옮기는데 그 어려움이 뒤따른다.

타자기로 찍을 수 있어야 하며, 구별부호는 안쓰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D) 조 직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당한 언어학적 기준에 달해야 한다.

4) *이상억(1981:15-16)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밀음성표기(narrow phonetic transcription)
- ② 간략음성표기(broad phonetic transcription)
- ③ 음소(음운)표기(phonemic transcription)
- ④ 형태음소(음운)표기(morphophonemic transcription)
- ⑤ 축자음역(transliteration, literal transcription)

*정민섭(1973:302)의 분류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음성학적 표기법 ② 음소학적 표기법 ③ 서양식 국자화
- ④ 전사적 표기법 ⑤ 일반적 표기법

그러면 이에 대한 具體的인 實例를 다음에서 찾아본다(이현복 1979:147).

例: 철자법: 맑은 시냇물과 젊고 푸른산림

(1) 음성표기: 말근 시냇물과 젊꼬 푸른 살림

[matʰlgwʌtʰn sʰinɛmmʌlgwa jɛ-mkɔ pʰurwn sʰa-lɛim]

(2) 음운 표기: 말근 시냇물과 젊꼬 푸른 살림

/malgwn sinɛnmulgwa jʌmkɔ pʰurwn sallim/

(3) 형태표기: 맑은 시냇물과 젊고 푸른 산림

/marwn sinɛsmurgwa jʌrmgɔ purwn sanrim/

위에서 音聲表記는 正밀音聲表記에 가까운 것으로 IPA의 符號(h, l, i)를 使用한 方式은 具體的인데까지 表記할 수 있는 長점이 있으나 一般大衆性으로 부적합하다. 形態表記로서의 MOE 2안(1959)은 現行 맞춤법에 立脚한 것으로서 視覺的인 形態를 잘 傳達하고, 再生能力(原語에의 환원성)도 높다. 한편 音韻表記는 M-R안(1939)과 같이 外國人들에게 聽覺的인效果(acoustic effect)를 주는 것으로서 原音과의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OE 2안(1959)은 形態表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로마字表記法은 그 制定하는 目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말을 로마字로 옮겨적는데 그 目的을 두가지로 生覺할 수 있다.

첫째, 우리말을 모르는 外國人에게 우리말의 發音의 대강을 傳達해서 그들의 言語속에서 섞어 쓸 수 있게 하는 것, 즉 外國人들의 처지에서 보다 韓國語가 그들의 外來語의 位置에 놓이는 것(유만근 1985:171).

둘째, 韓國語의 本格的인 학습이나 言語學的인 分析을 하고자 하는 外國人이 한글의 正字法대신 편의상 로마字表記法을 사용하는 것(이맹성 1978:155).

위의 두가지에서 로마字表記體系를 制定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前提條件은 두말할 것도 없이 外國人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배양서(1979:121)가 지적했듯이 韓國人을 위한 것이 아니고, 韓國을 알고자 하되 일시적으로나마 皮상적으로 알고자 하는 外國人들에게 그들이 익숙히 아는 글자를 빌어 우리 한글이 갖는 소리를 비슷하게나마 再現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表記法은 가능한한 外國人에게 自然스럽고, 간편하고, 한글綴字보다 로마綴字의 개념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

필자의 生覺으로는 國語의 로마字表記法이 窮極的으로 外國人을 主對象으로 하

고 있는만큼 그들에게 自然스럽게 읽힐 수 있으면 그것으로 足하다고 본다.

우리말의 音韻體系가 外國語와 相異함으로 생기는 表記上의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으로 二元化 System⁵⁾—一般社會用과 言語學者用—을 生覺해 볼 수 있다. 元來 로마字化(Romanization)에서 單一System이란 있을 수 없기때문에 一元化로 생기는 混亂보다 二元化System으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自然스럽고, 간편함을 目的으로 하는 一般社會用의 表記法을 最大한 활용하여 모든 道路標識, 案内標識 등에 사용하고, 한편 言語學者用의 表記法은 學術的 理論으로 더 연구하여 상호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方法일 것이다.

Rutt (1972:20)도 “一般社會用의 目的이 반드시 專門의 용도에 附合되어야 할 理由가 없다”고 했고, 김충배(1978:74)도 “一般社會용도를 目的으로 한다면 간편하고 實用的이고, 지나치게 正교하지 않으면서 文字生活에 편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성과 일관성유지…”라고 했다. 이 말은 言語學的으로나, 科學的으로 理論的 근거와 정확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3. 로마字의 來歷

우리말의 로마字表記는 일찌기 歐美人들의 기호에 맞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선 1832年(순조 32年)에 독일인 의사로 日本政府 高문관이었던 Philip Franz J.B. van Siebold (1796~1866)를 효시로 1920年까지 동양 學者, 선교사 및 외교관 등에 의하여 制定되었다(김민수 1973:289).

여기서 고찰해볼 것은 한글의 로마字表記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글의 로마字化(Romanization)이라기 보다는 주로 한글자모에 대한 文字로서의 音價를 밝힌 것이라고 生覺된다.

5) M-R(1939:1, cf. 이상억 1982:169)에 의하면 二元化System의 先例는 中國에서 Wade-Giles와 Pin-Yin System이 並行되고 있고, 日本에서도 Hepburn(標準式)과 Nipponsiki Romaji(日本式 로마字)가 共存하고 있고, 現在 철도名, 道路名, 人名, 英字新聞등에서 前者로 通用되고 있다.

고 있는만큼 그들에게 自然스럽게 읽힐 수 있으면 그것으로 足하다고 본다.

우리말의 音韻體系가 外國語와 相異함으로 생기는 表記上의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으로 二元化 System⁵⁾—一般社會用과 言語學者用—을 生覺해 볼 수 있다. 元來 로마字化(Romanization)에서 單一System이란 있을 수 없기때문에 一元化로 생기는 混亂보다 二元化System으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自然스럽고, 간편함을 目的으로 하는 一般社會用的 表記法을 最大한 활용하여 모든 道路標識, 案内標識 등에 사용하고, 한편 言語學者用的 表記法은 學術的 理論으로 더 연구하여 상호보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方法일 것이다.

Rutt (1972:20)도 “一般社會用的 目的이 반드시 專門의 용도에 附合되어야 할 理由가 없다”고 했고, 김충배(1978:74)도 “一般社會용도를 目的으로 한다면 간편하고 實用的이고, 지나치게 正교하지 않으면서 文字生活에 편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성과 일관성유지…”라고 했다. 이 말은 言語學的으로나, 科學的으로 理論的 근거와 정확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3. 로마字의 來歷

우리말의 로마字表記는 일찌기 歐美人들의 기호에 맞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선 1832年(순조 32年)에 독일인 의사로 日本政府 高문관이었던 Philip Franz J.B. van Siebold (1796~1866)를 효시로 1920年까지 동양 學者, 선교사 및 외교관 등에 의하여 制定되었다(김민수 1973:289).

여기서 고찰해볼 것은 한글의 로마字表記는 우리의 필요가 아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글의 로마字化(Romanization)이라기 보다는 주로 한글자모에 대한 文字로서의 音價를 밝힌 것이라고 生覺된다.

5) M-R(1939:1, cf. 이상억 1982:169)에 의하면 二元化System의 先例는 中國에서 Wade-Giles와 Pin-Yin System이 並行되고 있고, 日本에서도 Hepburn(標準式)과 Nipponsiki Romaji(日本式 로마字)가 共存하고 있고, 現在 철도名, 道路名, 人名, 英字新聞등에서 前者로 通用되고 있다.

실질적인 表記法은 1881年 이후부터 찾을 수 있다. 다음에 여러 學者들의 表記法中에서 논란의 對象이 되는 子音(파열음 / 파찰음)과 母音을 提示한다.

<表 1>

A. 子音	ㄱ	ㅋ	ㆁ	ㄷ	ㅌ	ㅃ	ㅈ	ㅊ	ㅍ	學 者
①佛語系 :	K	HK	KK	P	HP	PP	TJ	TCH	TTJ	Corée(1881)
	K	K'	KK	P	P'	PP	TJ	TCH		C. Imbault-Huart(1889)
	K	K'	KK	P	PF	PP	TJ	TCH	TTJ	Ch. Alévêque(1901)
②英語系 :	G	K	G	B	P	B	DS	TS		J. Ross(1882)
	K	K'	KK	P	P'	PP	CH	CH'	CHCH	J. Scott(1887)
	K	K'	G	P	P'	B	CH	CH'	J	A. L. Baird(1896)
	K	K'	G	P	P'	B	CH	CH'	J	J. S. Gale(1897)
	K	'K	G	P	'P	B	CH	'CH	J	J. W. Hodge(1897)
③獨語系 :	K	K'		P	P'		Č	Č		Gabelentz(1892)
	K	KH	G	P	PH	B	TJ	TCH	DJ	P. A. Eckardt(1923)

※ ㄷㅌㅃ은 대개 ㄱㅋㆁ과 같은 체계로, 그밖의 ㄴㄹㅁㅇ은 m, r(ℓ), n, ng로 됨.

B.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學 者	
①佛語系 :	E	YE	OU	EU	I	AI	EI	OA	OI	Corée(1881)
	E	YE	OU	EU	I	AI	EI	OA	OI	Imbault-Huart(1889)
②英語系 :	E, Ö	YE, YÖ	OU	EU	I	AI	EI	OA	OI	J. Scott(1887)
	U	YU	OO	EU	İ	A	Ä	WÄ	Ä	W. M. Baird(1895)
	AU	IAU	OU	EU	I	AI	EI	OA	EU	A. L. Baird(1896)
	Ü, Ö	YÜ, YÖ	U	EU	I			WA		J. S. Gale(1897)
	Ö	YÖ	OU	EU	EE	AI	AY	OAWAH	OI wee	J. W. Hodge(1897)
③獨語系 :	Ě	IE	U	Ö						Gabelentz(1892)
	Ö, Ü	yö, yü	U	Ü	I	AI, Ä	E	OA	OI, Ö	P. A. Eckhardt(1823)

※ ㅏㅑ는 a.o로, ㅛㅜㅠㅛ...등은 각기 체계상 짐작되므로 생략됨.

〈表 1〉에 의거하여 대표적인 學者만 약술한다.

먼저 John Ross는 1882年 그의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에서 ㅂㄷㄱㅈ와 ㅍㅌㅋㅊ를 각기 bdgds/j와 ptkch/ts로表記했다.

특히 'Mrs. Bag System'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MOE 2안(1959)에서 ㅂㄷㄱ를 bdg에 대응시킨 것도 바로 그가 창안한 것이다(이상억 1982:167).

1887년에 James Scott는 그의 <A K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에서 子音 ㄱㅋㄱ/ㅂㅍㅂ/ㄷㅌㅌ를 각기 k k' kk/pp' pp / t t' tt로 일관성있게表記했고, 母音에서 예컨대 ㅜㅡㅛㅟ가 二重母音 ou eu oi ei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John.Hodge는 1897년에 그의 <The Stranger's Handbook of the Korean Language〉에서 子音 ㄱㅌㅌㅈ를 ktpch에 대응시키고, 글자앞에 有氣音(aspiration)을 붙여 ㅋㅌㅍㅊ를 'k't'p'ch로 사용한 것이 돋보인다.

A.L. Baird는 1911년에 그의 <Fifty for the Beginners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에서 모든 子音에 부호를 붙여서 영어와 區別한 것이 그의 특징이다. 즉 ㄱㅌㅌㅈ를 ktpz에 대응한데 대해, ㅋㅌㅍㅊ는 k't'p'ch' 같은 apostrophe를 有氣音으로表記했고, ㄱㅌㅌㅈ를 gdbj로表記했다.

마지막으로 1923年 P.A.Eckardt가 그의 <Koreanische Konversation - Grammatik〉에서 子音 ㄱㅌㅌㅈ를 ktptj에 대응시키고, ㅋㅌㅍㅊ는 kh th ph tch로表記했고, ㄱㅌㅌㅈ는 유성음 gdbdj로表記했다(정인섭 1973: 304 - 309 참조).

이상의 學者들의表記法을 일별해보면 그사이에 어떤 時代的 系統을 찾을 수 있겠다.

〈表 2〉

I. 子音의 로마字化	
	K K' KK
(1) 佛語系 :	T T' TT = M-R안 ⇒ Lukoff안 ⇒ Yale안 ⇒ Park안 ⇒ Revised MOE안
	P P' PP (1939) (1947) (1954) (1960) (1984)
	K KH GG Baird
(2) 英語系 :	T TH DD = Gale ⇒ 최현배안 ⇒ MOE안(1948) ⇒ 최현배안(1961)
	P PH BB Hodge (1982)

G K GG	
(3) Ross 系 :	D T DD = 정인섭안 ⇒ 조선어안 ⇒ 주요한안 ⇒ MOE안(1959)
	B P BB (1935) (1940) (1954)
II. 母音의 로마字化	
W.M. Baird	
(1) 符號 :	Ö Ü = Gale = 정인섭안(1935) ⇒ M-R안(1939) ⇒ 조선어안(1940)
	Hodge ⇒ 최현배안 ⇒ MOEI안 ⇒ MOE안(1942) (1948) (1984)
	Eckardt
(2) 發音 :	φ ʉ = Lukoff안(1947) ⇒ Park안(1960)
(3) 文字 :	E U = Yale안(1954) ⇒ MOE2안(1959) ⇒ 주요한안 ⇒ 최현배안(1954) (1961)

(김민수 1973:302, 이상억 1981:24~25참조)

위의 계통을 개관해볼 때 종래 MOE 2안(1959)이나 새로 개정된 MOE안(1984)의 子母表記에서 그 言語學的 理論을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로마字表記案의 對照表

〈表 3〉

	한글	(1)M-R안(1939)	(2)조선어안(1940)	(3)Lukoff안(1947)	(4)MOE안(1948)	(5)Yale안(1954)	(6)MOE2안(1959)	(7)MOE안(1984)
子音	ㅂ	P/B	B	P	P	P	B	P/B
	ㅃ	P'	P	PH	PH	PH	P	P'
	ㅍ	PP	BB	PP	BB	PP	BB	PP
	ㄷ	T/D	D	T	T	T	D	T/D
	ㄸ	T'	T	TH	TH	TH	T	T'
	ㅌ	TT	DD	TT	DD	TT	DD	TT
	ㅅ	S	S	S	S	S	S	S/SH
	ㅆ	SS	SS	SS	SS	SS	SS	SS
	ㅈ	CH/J	Z	J	CH	C	J	CH/J
ㅊ	CH'	CZ	JH	CHH	CH	CH	CH'	

G K GG	
(3) Ross 系 :	D T DD = 정인섭안 ⇒ 조선어안 ⇒ 주요한안 ⇒ MOE안(1959) B P BB (1935) (1940) (1954)
II. 母音의 로마字化	
(1) 符號 :	Ö Ü = W.M. Baird Gale = 정인섭안(1935) ⇒ M-R안(1939) ⇒ 조선어안(1940) Hodge Eckardt ⇒ 최현배안 ⇒ MOEI안 ⇒ MOE안 (1942) (1948) (1984)
(2) 發音 :	ϕ ʉ = Lukoff안(1947) ⇒ Park안(1960)
(3) 文字 :	E U = Yale안(1954) ⇒ MOE2안(1959) ⇒ 주요한안 ⇒ 최현배안 (1954) (1961)

(김민수 1973:302, 이상억 1981:24~25참조)

위의 계통을 개관해볼 때 종래 MOE 2안(1959)이나 새로 개정된 MOE안(1984)의 子母表記에서 그 言語學的 理論을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로마字表記案의 對照表

〈表 3〉

	한글	(1)M-R안 (1939)	(2)조선어안 (1940)	(3)Lukoff안 (1947)	(4)MOE안 (1948)	(5)Yale안 (1954)	(6)MOE2안 (1959)	(7)MOE안 (1984)
子音	ㅂ	P/B	B	P	P	P	B	P/B
	ㅃ	P'	P	PH	PH	PH	P	P'
	ㅍ	PP	BB	PP	BB	PP	BB	PP
	ㄷ	T/D	D	T	T	T	D	T/D
	ㄸ	T'	T	TH	TH	TH	T	T'
	ㅌ	TT	DD	TT	DD	TT	DD	TT
	ㅅ	S	S	S	S	S	S	S/SH
	ㅆ	SS	SS	SS	SS	SS	SS	SS
ㅈ	CH/J	Z	J	CH	C	J	CH/J	
ㅊ	CH'	CZ	JH	CHH	CH	CH	CH'	

	한글	(1) M-R안 (1939)	(2) 조선어안 (1940)	(3) Lukoff안 (1947)	(4) MOE1안 (1948)	(5) Yale안 (1954)	(6) MOE2안 (1959)	(7) MOE안 (1984)
子	ㅈ	TCH	ZZ	JJ	DCH	CC	JJ	TCH
	ㄱ	K/G	G	K	K	K	G	K/G
	ㅋ	K'	K	KH	KH	KH	K	K'
	ㄲ	KK	GG	KK	GG	KK	GG	KK
	ㅁ	M	M	M	M	M	M	M
	ㄴ	N	N	N	N	N	N	N
	ㅇ	NG	NG	NG	NG	NG	NG	NG
음	ㄹ	L/R	R	L	R	L	L/R	L/R
	ㅎ	H	H	H	H	H	H	H
母	ㅣ	I	I/YI	I	I	I	I	I
	ㅍ	WI	WI	WI	WI	WI	WI	WI
	ㅑ	E	E	E	E	EY	E	E
	ㅓ	YE	YE	YE	YE	YE	YE	YE
	ㅕ	WE	WE	WE	WE	WE	WE	WE
	ㅗ	OE	OE	Ö	OE	OY	OE	OE
	ㅛ	AE	Ě	Ä	AI	AY	AE	AE
	ㅜ	YAE	YĚ	YÄ	YAI	YAY	YAE	YAE
	ㅠ	WAE	YĚ	WÄ	WAI	WAY	WAE	WAE
	ㅡ	Ũ	Ũ	U	Ũ	U	EU	Ũ
	ㅣ	Ö	Ö	ϕ	Ö	E	EO	Ö
	ㅑ	YÖ	YÖ	Yϕ	Yϕ	YE	YEO	YÖ
	ㅓ	WÖ	WÖ	Wϕ	WO	WE	WEO	WO
	ㅕ	A	A	A	A	A	A	A
	ㅛ	YA	YA	YA	YA	YA	YA	YA
	ㅜ	WA	WA	WA	WA	WA	WA	WA
	ㅠ	U	U	U	U	WU	U	U
	ㅑ	YU	YU	YU	YU	YU	YU	YU
	ㅓ	O	O	O	O	O	O	O
	ㅛ	YO	YO	YO	YO	YO	YO	YO
	ㅠ	ŪI	ŪI	HI	ŪI	UY	EUI	ŪI

〈表 3〉에서 各表記의 共通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 (1)子音 6個 : ㅅㅆㅎㄴㅇ(但 MOE 안(1984)에서 ㅅ(s)+ㅣ(i)에서 s가 아니라 sh, 조선어안(1940)에서 ㅣ이 i/yi 허용) (2)母音 8個 : ㅏㅓㅣㅗㅜㅛㅜㅛㅜㅛ 합 14個는 어느表記에도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차례로 各表記法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4-1. M-R 안(1939)⁶⁾

韓國人이나 外國人에게 널리 호응을 얻고, 쓰이고 있는 M-R 안(1939)은 당시 美國 California大學의 McCune 교수와 Harvard大學 教授 Reischauer의 共同研究論文으로 國內學者들의 協助를 얻어 그들의 Royal Asiatic Society의 Transactions 29號(1939)에 發表된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on its phonetic structure”에서 한글의 로마字表記를 約 6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다룬 案이었다.

이 System의 골격에서 살펴볼때 母音 ㅜ/ㅡ(ö/ǔ)는 Eckardt에서 子音 ㅋ ㅌ 표차와 ㅊㅌㅌㅌ은 각기 Gale, Scott,와 佛語系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表記案은 外國人이 韓國語의 發音에 가깝게(原音과의 유사성) 낼 수 있다는게 특징으로 되어있어서 이를 “narrow phonetic”(안호삼 1957: 296)이라고 하여 外國人에게 聽覺的 效果(acoustic effect)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흠이라면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인 breve(˘)와 apostrophe(')의 사용으로 內國人은 물론 外國人の 귀에 까지 생소하여 이를 제대로 發音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외에도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使用해 o/u로表記했으면 ㅏ(ae)는 ǎ로表記해 일관성있게 ö/ǔ/ǎ로 했더라면 ㅝ/ㅞ(yae/wae)처럼 3글자를 쓰는 不便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子音에서도 파열음(p p' pp/t t' tt/k k' kk)은 일관성있게 維持되고 있는 反面에 파찰음 ㅈㅊㅌ은 ch ch' tch으로 일관성의 缺여가 있다.

6) G.M.McCune & E.O.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IX(1939. 10), pp.1-55.

다음에 M-R안에 의한 地名表記의 實例를 들어본다.

〈表 4〉

地名	M-R	地名	M-R	地名	M-R
비원	Piwŏn	파주	P'aju	성남	Sŏngnam-si
불국사	Pulguk Temp.	대천	Taechŏn	시흥군	Sihŭng-gun
천안시	Chŏnan-Si	대전	Taejon	석굴암	Sŏkkuram
청주시	Chŏngju-si	덕산	Tŏksan	설악산	Sŏrak Mt.
춘천	Chunchŏn	간성	Kansŏng	원주시	Wŏnju-si
추풍령	Chup'ungnyŏng	금호	Kŭmho	용인군	Yong'in-gun
경기도	Kyŏnggi-de	구성군	Kusŏng-gun	판문점	P'anmunjŏn
중로	Chongno	성동	Sŏngdong		

(大韓民國 主要地名一覽表, 建設部, 1982.11참조)

〈表 4〉에서는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이 눈에 띈다. 좀 더 具體的인 例를 M-R안(1939)의 저자인 McCune-Reischauer의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p.52)에서 인용한다.

- (1) 韓 語 : 한글운동은 연산군조에 이르러 큰 억운을 당하였다.
- (2) M-R表記 : Haŋgŭl Undongŭn Yongsan-gun chŏe irŭrŏ K'un aeg-unŭl tanhayŏtta.
- (3) 英 文 : The Han'gŭl movement was placed in an extremely critical position during the reign of the ruler Yŏng-san.

M-R式 表記는 한글맞춤법 보다는 로마綴字의 개념에 重點을 두려고 한것 같다.

4-2. 조선어음 로마字안(1940)⁷⁾

M-R안(1939)이 'narrow phonetic transcription'인데 비해서, 조선어

7) 朝鮮語學會, 「外來語表記統一案」 1941.1, 1973. 國語政策論 p.293 참조.

음로마字案은 한글맞춤법에 立脚한 ‘broad phonemic transcription’라고 하겠다.

이 두 表記法은 당시 상당한 시일에 걸쳐 對立되어 왔다. 前者, M-R案은 外國人들에게는 친근감을 주었으나, 韓國人에게는 오히려 불편했다. 한편 後者, 조선어 로마字案은 한글의 참모습을 充實히 옮겨적는 데는 편리했으나, 外國人에게는 호응을 얻지 못해 인기가 없었다.

이 案의 골격은 정인섭안(1935)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子音에서 ㄱㄷㅂ를 g d b로, ㅋㅌㅍ를 k t p로 表記했고, 母音에서 M-R式대로 ㅏ/ㅑ를 ŏ/ǔ로 表記했다.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ㄱㄷㅂ를 g d b에 대응시킨 結果—예컨대 Mr. Gim, Mr. Gang, Mr. Bag처럼 어색한 表記가 되었고(‘Mrs. Bag System’), M-R System처럼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사용하고 있고(ŏ ũ ě ŭi wŏ wě 등), 장모음에서 같은 母音을 두개 거듭 적는 경우(ex. baal(밭), byool(별), gool(굴) 등), 그리고 파찰음 ㅈㅊㅉ를 z cz zz로 대응시킨 경우(ex. 인천 Inczŏn, 조치원 zŏcziwon) 등 여러가지 表記上 어색한 點이 눈에 띄었다.

한글학회에서 이와같은 表記法을 사용한다면은 그만큼 理論的 근거가 있었던 것 같다. 즉 ㅈ을 z로 대응시킨 것은 z ㅈ음이 각국에서 그다지 소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정인섭 1973:311).

그리고 ㅊ를 cz에 대응시킨 것은 이미 ㅈ=z 관계처럼 ㅊ은 체계상 cz로 해야 했다. 그와같은 例는 固有名詞 Czech, Czechoslovakia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글학회의 「조선어음 나마자案」(1940)은 固有名詞의 表記를 目的으로 「총칙·조선어음 로마字對照表와 7個項의 세칙」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김민수 1973:293 참조). 그러나 이 案은 一般人과 外國人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니 철도명(인천 Inczŏn, 조치원 Zŏcziwŏn)이 어느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4-3. Lukoff 안(1947)⁸⁾

Lukoff 안은 外國人에게 韓國語의 基本회화를 단시일에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된

8) Fred Lukoff, Spoken Korean, Basic Course 2 vols. New York: Henry Holt, vol 1. 1945, vol 2. 1942.

것으로(백양서 1975:123), 한때 美國言語學會에서 채택되어 美陸軍外國語學校에서 쓰였기에 일명 American Linguistic Society(ALS)라고 불렀다(안호삼 1957:299).

이 案은 앞서 M-R안과 거의 흡사하나 파찰음 ㅈ ㅊ ㅌ를 j jh jj로 대응시켜 有聲음을 사용한게 특징이다.

ㅈ을 ch로表記하면 ㅊ은 chh로表記하게 되어서 外見上 좋지않아, ㅈ을 j로 하고, ㅊ은 Aspiration 인 jh로 한것 같다. 또한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使用하여 글자안에 ㅡ(ㅈ), ㅍ(ϕ), ㅑ(yϕ), ㅓ(wϕ) 등으로 한 것은 視覺的 效果를 노린 것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區別符號(ㅈϕ)는 타자기에 있기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다음에 <表 5> M-R안과 ALS.에서 파열음(ㅋ ㅌ ㅍ), 파찰음(ㅈ ㅊ ㅌ), 그리고 母音(ㅣ/ㅡ)을 서로 對照해 보면 다음과 같다(안호삼 1973:299-300).

4-4. MOE 1안(1948)⁹⁾

해방후 大韓民國의 公式政府案이라고 불리우는 이 案은 우리나라의 語文政策이 아직 이렇다 할 理論的 근거를 提示하지 못한 가운데 決定되었으며, 그후 MOE.2안(1959)이 나오기까지 公式案으로 10여년간 사용되었다.

이 안은 당시 文敎部 編修局長이었던 최현배안(1942)을 조금 수정하여 개정한 것이었고 M-R식과도 매우 비슷하나, 조선어案과는 다른 내용이였다.

다음에 M-R안(1939), 최현배안(1942) 및 MOE 1안(1948)을 對照해 본다.

<表 5>

	한글	M-R	American Linguistic Society
子音	ㅋ	K'	KH
	ㅌ	T'	TH
	ㅍ	P'	PH
	ㅈ	CH	J
	ㅊ	CH'	JH
母音	ㅈ	ϕ	ϕ
	ㅡ	ϕ	ϕ

9) 문교부 「들은말 적는법(外來語表記法)」 1952.10. 부산: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pp. 34-42 (붙임 2.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법) 참조

〈表6〉의 各 表記案에서 子音과 母音중에서 특이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子音에서 된소리 ㅃ ㅆ ㅈ ㅊ를 최현배案과 MOE1案은 모두 bb dd gg dch로 表記했고, M-R案만 pp tt kk tch로, 즉 前者는 形態表記인데 대해 後者는 音韻表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찰음 ㅅ ㅆ ㅈ에 대해서 M-R案은 ch/j ch' tch로, 최현배案은 c ch zz(1961年 개정안은 č čh jj)로, MOE1案은 ch chh dch로 각기 表記했다.

그리고 母音 ㅛ ㅜ ㅠ ㅝ에서 M-R案은 oe, ae yae wae로, 최현배案은 "ö ǔ yě wě(1961年 oy ay yay way)로 각기 表記했고, 특히 ㅛ/ㅝ의 表記는 3案이 모두 ö/ǔ로 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5. Yale 안(1954)¹⁰⁾

M-R안 이외에 外國人에 의해 고안된 表記法으로 앞서 (4-3)에서 언급한 Lukoff안과 여기서 다룰 Yale안의 두가지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

Yale안은 Lukoff안과 더불어 外國人을 위해 發音轉寫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비교적 우수한 表記法으로 통하고 있다.

Rutt(1972:22)는 Yale안을 'technical linguists' method'로 칭할만큼 正確性과 組織性을 지니고 있어서 言語學者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反面에 一般社會用으로 쓰이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Yale안은 具體的으로 어떤 것일까?

Yale안은 로마字表記法의 기본원칙(제1장 제2항)에 따라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순수한 로마字로만 表記되어 있어 타자기로 모두 찍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母音 ㅛ/ㅝ을 e/u로 대응시킨 것도 다른 表記法(o/u)과의 區別되는 특징을 지녔다.

다음에 두 表記法을 對照해 본다.

10) 김민수(1973:296). Samuel E. Martin.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54. Samuel E. Martin, Yang Ha Lee, & Sung-Un Chang. A Korean-English Dictionar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7. xviii + 1902 pp. 일반적으로 Yale Romanization System으로 통하고, S. Martin 교수에 의해 채택되었다.

〈表 7〉

I	한 글	ㅍ	ㅑ	ㅑ	ㅑ	ㅑ	ㅑ	ㅋ	ㅋ	ㅋ	ㅑ	ㅑ	ㅑ
子	Yale 안	P	PH	PP	T	TH	TT	K	KH	KK	C	CH	CC
音	Lukoff 안	P	PH	PP	T	TH	TT	K	KH	KK	J	JH	JJ
II	한 글	ㅑ	ㅑ	ㅑ	ㅑ	ㅡ	ㅑ	ㅑ	ㅑ	ㅑ	ㅑ	ㅑ	ㅑ
母	Yale 안	OY	AY	YAY	WAY	U	E	YE	WE	UY			
音	Lukoff 안	Ö	Ä	YÄ	WÄ	U	Ø	YØ	WØ	Ui			

〈表 7〉에서 子音에서는 모두 같고, 파찰음 스ㅑㅑ에서 Yale案은 c ch cc로, Lukoff案은 j jh jj로 表記했다.

母音에서 Yale案은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Lukoff案은 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S.Martin(1968:89)도 “Yale Romanization으로 쓰여진 말은 自動적으로 한글綴字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例컨데 ‘전주’는 Cencwu로 表記되나, 逆으로 이를 다시 우리말 發音(原語에의 환원성)으로 再生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 案이 종래 表記法과 다른 점은 ㅑ/ㅑ를 e/ey로 表記했다. 이렇게 되면 ㅑ/ㅑ는 ey/ay로 ㅑㅑㅑㅑ는 각기 yey, wey, yay, way와 같이 되는데 이와같은 表記는 글자를 3個 겹쳐써야 되는 번거로운 結果를 낳으므로 國際音聲記號(IPA)에도 위배된다.

그外에도 Yale System이 英語와 비교해서 有氣音이 들어가는 된소리(ㅑㅑㅑ : ph th kh)에서 각기 ph[f], th[θ,θ]와 ch[tʃ,k]으로 發音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例 : Ph[f] : phantom, phase, philosophy, photograph, phrase, physical

Th[θ] : thank, thaw, thatch, theater, theme, theory, thesis, thing, thief, think, third, though

[θ] : than, that, there, they, this, thou, thus

Ch[tʃ] : chair, chalk, challenge, chamber, chance, change,

chapter, charity, check, chess, china

[k] : character, chemical, choral, chorus, christ, christmas.

[ʃ] : chauffeur, chef, chivalry, chatelaine.

지금까지 여러 表記안(M-R안, 조선어안, Lukoff 안, MOE 1안)의 母音에서 는 모두 u로 표현되어 있으나, Yale안에서는 원순음을 살려서 입술을 둥글게 내미는 wu로 表記한 점이 특징적이다(배양서 975:121).

이와같은 점에서 Yale案은 한글綴字法에 너무 充實한 나머지 어색하고, 不自然스러운 면이 있으나, M-R안과 더불어 關心의 對象이 되는 表記法이라고 여기는 것이 여러 學者들의 견해이다(이상억 1982:9, 김충배 1978:76참조).

4-6. MOE 2안(1959)¹¹⁾

政府公式表記인 MOE 1안(1948)이 國內에서 10年間 쓰여오는데 國內 各 계에서부터 우리 韓國의 主體性을 살린 새로운 統一된 案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MOE 2안(1959)이 생기게 되었다.

이 案은 한국인의 便宜로 制定되었기 때문에 종래 사용되어오던 M-R案, Yale案, Lukoff안과는 表記에서 상당한 거리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MOE 2안이 各級學校 教科書, 道路標識, 案內標識, 政府 各 部處의 弘報冊子用 등에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MOE 2안(1959)은 國語審議會外來語表記分科委員會에서 채택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子音의 파열음과 파찰음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表8>.

그 結果 종래의 여러 表記法과 아주 동떨어진 B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案은 <表8>에서 파찰음 ㅈ ㅊ ㅉ을 j ch jj로 表記했고 區別符號(diacritical mark)가 없는 대신 母音 ㅜ/ㅡ를 eo/eu의 二重母音으로 사용했을뿐 그외에는 조선어안(1940)과 거의 같아 후퇴한 감이 없지 않다.

이때부터 이 땅에는 M-R안(1939)과 MOE 2안(1959)의 兩大表記의 混用

11) 문교부, 「國語심의위원회 회의록」 의거. 이 표기법에 대한 설명은 김민수「국어핸드북」 1960.7. 서울: 一潮閣, pp.579~584 김민수(1973:299) 참조.

으로 과거 25년간 쓰여왔을 정도로 言語政策에 일대 亂脈相을 이루어 왔다.

〈表 8〉

한 글	A 案				B 案			
(1) ㄱ ㄷ ㅂ ㅅ	K	T	P	Ǿ	G	D	B	J
(2) ㅋ ㅌ ㅍ ㅊ	KH	TH	PH	ǾH	K	T	P	CH
(3) ㄱ ㅋ ㅌ ㅍ	GG	DD	BB	ǾǾ	GG	DD	BB	JJ

(최현배 1961:692 참조)

다음에 地名·人名表記에서 다양한 실례를 들어본다.

I. 地名表記

〈表 9-1〉

한 글	MOE 2 안	한 글	MOE 2 안	한 글	MOE 2 안
수 원	Suweon	대 전	Daejon	축석루	Chogseognu
평 택	Pyeongtaeg	천 안	Cheonan	영 천	Yeongcheon
시 흥	Siheung	경 주	Gyeongju	대흑산도	Dacheugsando
옥 천	Ogcheon	청 송	Cheongsong	구 포	Gupo
영등포	Yeongdeongpo	영 덕	Yeongdeog	범주사	Beobju Temp
영 동	Yeongdeong	목 포	Mogpo	경산도	Gyeongsando
속리산	Sogli Mt.	덕 곡	Deogog	범어사	Beomeo Temp
동두천	Dongducheon	월성군	Weolseonggun	경북궁	Gyeongboggung

(문교부 1972: 2-32 참조)

II. 人名表記

〈表 9-2〉

姓	로	마	字	表	記
라	LA, ROH, RA, LAH, RHA				
노	LOH, NOH, RO, ROH, ROE, LAU, LO, LHO, ROE, RHO, NO, RAW				
박	PAK, BAK, PARK, BARK, PAC, BAHK, PACK				

姓	로	마	字	表	記
백	PAIK, BAIK, BAEK, PAEK				
서	SUH, SEO, SUHR, SOH, SEU, SOUNG, SEUNG				
유	YU, YOO, RHYU, RYOO, LIU, YOU, REW, LEW				
이	LEE, RHEE, YI, RHI, RHIE, RYEE				
임	IM, RIM, RHIM, LIM, LIMB, YIM, LHIM				
천	CHUN, JEOUN, JUN, JEON, JHUN, JHON, CHON, JOUN, CHEUN, JUHN, JOHN				
정	CHUNG, TSCHUNG, JUNG, JEONG, CHYUNG, JOUNG, CHONG, JHEONG, JYOUNG, CHOUNG				
조	CHO, CHOU, ZO, CHJO, JO, JOE, JOH				
주	JOO, CHOO, CHU, CHO, JU, CHOU, JYOO				
최	CHOI, CHAIR, CHOE, CHEI, CHOY, CHEY				

(東亞日報 人名別冊, 東亞日報社, 1984 참조)

〈表 9-1〉에서 ㄱㄷㅂ은 어김없이 g d b로, ㅅ/ㅆ는 eo/eu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表 9-2〉에서 ㄱㄷㅂ은 p t k/b d g의 혼용으로 여러가지로表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MOE 2 안(1959)의 問題點

前章에서도 언급했듯이(第2章), 한글의 로마字表記의 기본目的은 첫째로 우리 말을 모르는 外國人이 우리말(主로 固有名詞)—그것이 道路標識이든 地圖上에 나타난 地名이든—을 알아보거나, 發音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外國語로 글을 쓸때에 우리 固有名詞를 그 外國語式으로表記하는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우리말의 音韻體系와 外國語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1音韻1記號(one letter per phoneme)로 대응시킬 수 없다. 따라서 外國人의 便宜에 맞게表記되는 M-R式이 그들에게 신호가 되는 것은 自명한 결과이

姓	로	마	字	表	記
백	PAIK, BAIK, BAEK, PAEK				
서	SUH, SEO, SUHR, SOH, SEU, SOUNG, SEUNG				
유	YU, YOO, RHYU, RYOO, LIU, YOU, REW, LEW				
이	LEE, RHEE, YI, RHI, RHIE, RYEE				
임	IM, RIM, RHIM, LIM, LIMB, YIM, LHIM				
천	CHUN, JEOUN, JUN, JEON, JHUN, JHON, CHON, JOUN, CHEUN, JUHN, JOHN				
정	CHUNG, TSCHUNG, JUNG, JEONG, CHYUNG, JOUNG, CHONG, JHEONG, JYOUNG, CHOUNG				
조	CHO, CHOU, ZO, CHJO, JO, JOE, JOH				
주	JOO, CHOO, CHU, CHO, JU, CHOU, JYOO				
최	CHOI, CHAIR, CHOE, CHEI, CHOY, CHEY				

(東亞日報 人名別冊, 東亞日報社, 1984 참조)

〈表 9-1〉에서 ㄱㄷㅂ은 어김없이 g d b로, ㅅ/ㅆ는 eo/eu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表 9-2〉에서 ㄱㄷㅂ은 p t k/b d g의 혼용으로 여러가지로表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MOE 2 안(1959)의 問題點

前章에서도 언급했듯이(第2章), 한글의 로마字表記의 기본目的은 첫째로 우리 말을 모르는 外國人이 우리말(主로 固有名詞)—그것이 道路標識이든 地圖上에 나타난 地名이든—을 알아보거나, 發音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外國語로 글을 쓸때에 우리 固有名詞를 그 外國語式으로表記하는 것이라 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우리말의 音韻體系와 外國語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1音韻1記號(one letter per phoneme)로 대응시킬 수 없다. 따라서 外國人의 便宜에 맞게表記되는 M-R式이 그들에게 신호가 되는 것은 自明한 결과이

다.

現在 國內에서 로마字化(Romanization)하는 外國語는 주로 國際語가 英語이므로, 그 表記는 당연히 英語中心(Anglicization)으로 되어야 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國語의 로마字表記」는 실제로 로마字로 하되, 근원적으로 英語式 綴字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MOE2안(1959)의 實相은 어떤가?

MOE2안(1959)은 우리 한글의 綴字法에 따라 充實히 表記되고 있으나, 外國人이 이를 제대로 發音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原音과의 거리가 먼데 그 問題點이 있다. 예컨대 ‘거북선’은 Geobugseon으로, ‘독립문’은 Dogrib(mun)으로, ‘답십리’는 Dabsibri로 表記되다보니, 이를 英語使用國民(English Speaking people)들은 각기 ‘조박선’, ‘도구리브’, ‘다브시브리’(cf. 이강훈 1975: 1)로 發音될 가능성이 높고, 意味上으로도 어색하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경향이 있다(이상억 1982:172-173).

이와같은 視覺·聽覺의 嫌오감을 주고 있는 근본적 理由가운데 하나가 子音에서 ㅍ ㅌ ㅊ이 語頭에서 無聲音 k t p 대신 有聲音 g d b로 使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學者들의 일반적 경향이다(이명성 1978:159, 이상억 1982:172참조).

다음에 MOE2안(1959)의 기본원칙 표기일람 및 허용사항을 제시해보고 이를 M-R案과 비교 검토해 본다.

5-0. MOE2안의 原則

1. MOE2안의 원칙(1959年 2月 문교부제정)

- 1) 한글의 現行表記法은 로마字式으로 表記한다(正字法).
- 2) 로마字 이외의 符號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2) 1음운1기호의 表記를 原則으로 하되, 子音에 있어서는 그 기호를 허용한다.

2. 한글의 로마字化 方式

1) 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ㅖ	ㅘ	ㅚ	ㅜ	ㅞ	ㅟ	ㅟ
a	ya	eo	yeo	o	yo	u	yu	eu	i	ae	e	ye	yae	oe	wae	we		
ㅟ	ㅟ	ㅘ	ㅞ															
wi	eui	wa	weo															

2) 子 音

ㄱ. 파열음

ㅍ ㅂ ㅃ ㅌ ㄷ ㄸ ㅋ ㆁ ㆁ
 p b bb t d dd k g gg

ㄴ.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ㄷ. 비 음

ㅁ ㄴ ㅇ
 m n ng

ㄹ. 파찰음

ㅈ ㅊ ㅉ
 ch j jj

ㄷ. 유 음

ㄹ
 r, l

3. 허용사항

ㄱ. 유음은 初聲에는 r, 終聲에는 l 을 씀을 原則으로 한다.

(보기) 발 bal, 다리 dari

ㄴ. 형태소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음의 경우는 A(형태음운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밖은 B(음운론적 표기)를 허용한다.

보기	A	B
값이	gabsi	
값과	(gabsgwa)	gabgwa
옷이	osi	
옷과	(osgwa)	odgwa
옷만	(osman)	odman
옷안	(os-an)	od-an

ㄷ. 사이 ‘ㅅ’은 apostrophe 으로 表示하고, 분절은 hyphen(-)으로 표시

한다. 단, ‘ㄴ’은 ng 소리가 다른 음과 混同될 우려가 있을때 쓴다.

(보기)

장이	jang - i	장기(將碁)	jang - i
장끼	jang - ggi	장기(長期)	jang - gi
장기(長技)	jang - gi	잔기(殘期)	jan - gi
경안(慶安)	gyeong - an		

ㄹ. ‘ㅎ’ 받침은 나는 소리에 가깝게 적는다.

(보기) 좋다 jodta

ㄹ. 두형태소사이에 구개음화한 ㄹ, ㄴ이 덧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보기) 물약	mullyak	앞일	apnil
공사일	gongnil	앞니	apni

ㄹ. ‘깍고’와 같이 세번 거듭할때는 한자를 생략한다.

(보기) 깍고 ggaggggo → ggaggo 낚고 nagggo → naggo

※ (보기) ㄱ에서 받침뒤의 ㄹ은 ㄹ로 씀.

(보기) 신라 Sinla

ㄴ에서 ㅅ외에 ㅅ스ㄷ도 d로 적음.

ex. 갔지	gadji	갔으나	ggasseuna
빛장이	bidjang - i	꽃아	ggoja
꽃과	ggodgwa	꽃이	ggochi 등.

ㄷ에서 ‘가에’와 ‘개’가 혼동될때는 ga-e로 씀.

ㄹ에서 ㅎ+ㄷ=ㅌ(t), ㅎ+ㅅ=ㅆ(chi)의 法則을 적용.

이상은 MOE 2 안의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 글의 音韻體系와 다른 外國語를 1對1(one letter per phoneme)의 對應關係로 보기는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Underwood 1972:26).

그러면 MOE 2 안(1959)에서 가장 논란의 對象이 된 問題點을 分析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해 본다.

5-1. ㄱㄷㅅ/ㅅㅆㅌ

MOE 1 안(1948)만 하더라도 당시 여러 表記法(M-R, Lukoff, Yale)과

比較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느정도 原音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MOE 2안(1959)의 方向으로 急旋回 함으로 종래의 表記法과 거리가 생기면서 表記上의 여러 副作用을 초래해 -예컨데 Gang(갱), Dogrib(개늑골), Bag(가방)등 - 言語美學的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되니, 심지어 外國人들 사이에서 소위 “Mrs. Bag System”이란 별명까지 낳게 되었다.

다음에 파열음과 파찰음을 각 表記法과 對照해 본다.

〈表 10〉

	한 글	(1)M-R안	(2)Lukoff안	(3)MOE 1안	(4)Yale안	(5)MOE 2안
子	ㄱ ㄷ ㅂ ㅅ	k/g t/d p/b ch/j	k t p j	k t p ch	k t p c	g d b j
	ㅋ ㅌ ㅍ ㅊ	k' t' p' ch'	kh th th jh	kh th ph chh	kh th ph ch	k t p ch
音	ㄱ ㄷ ㅂ ㅅ	kk tt pp tch	kk tt pp jj	gg dd bb dch	kk tt pp cc	gg dd bb jj

〈表 10〉에서 모든 表記法이 MOE2안(1959)과 달라 初聲에서 모두 無聲音 k t p를 使用하고 있으나, MOE 2안(1959)만이 有聲音 g d b로 使用한 點이 특징이다. 國語의 파열음/파찰음은 3項對立¹²⁾(맑은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이 存在하나, 外國語(英語)에서는 3項對立 대신 2項對立(有·無聲音)의 音韻對立만이 存在한다. 다시말해서 國語의 音韻의 變別資質(distinctive feature)은 氣音과 근육긴장인데 對해, 英語의 音韻의 變別적 資質은 有聲·無聲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 國語의 3項對立과 英語의 2項對立 사이를 대응한 對應關係(correspondence)가 無理한 일이라 생각된다. 外國人이 原音에 비슷하게 發音해주면 그것으로 足하다.

事實上 우리말의 ㄱ ㅋ ㄷ ㅌ ㅂ ㅍ ㅅ ㅊ를 각기 k k'kk / t t' tt / p p' pp에 대응시켜 보아도 外國人에게는 하나같이 [k][t][p]로 發音될 가능성이 높다(백양서 1975:128).

이에대해 反對立場을 취한 한글학회(1984:85-86)도 있다. 즉 그것에 의하면 예컨데 발/팔, 북동/폭동, 병/영등의 最少對立語(minimal pairs)에서 각각 '팔' '폭

12)이상억(1981:26)은 國語의 3項對立을 평음, 유기음, 경음이라고 칭했다.

동 ‘평’으로 똑같이 발음하게 되므로 ‘밭’ ‘복동’ ‘병’ 등의 낱말을 우리말에서 모두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 마니, 곧 우리 國語의 音聲-音韻체계는 물론 어휘마저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ㅂㄷㄱ소리는 영어의 b d g와 같은 3項對立의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外國인들이 우리말의 原音에 가깝게 發音해주면 일단 成功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나 전라남도에서도 ㄱ/거, ㅅ/쓰의 區別이 잘 안되는 형편이니(배양서 1976:36참조), 外國人에게 우리식대로 3項對立의 音韻체계를 要求하는 일은 無理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배양서(1975:128)와 같은 意見을 갖는다.

다음으로 MOE 2 안(1959)에서 어두 ㄱㄷㅂ을 g d b에 대응시킴으로 생기는 言語美學的으로 좋지않은 낱말들을 生覺해 볼 수 있다(이상억 1982:170-171참조). <表 11>에서 有聲音 g d b로 시작되는 낱말들이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낱말은(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ex. god, good, grace 등.

어떤 音素의 變異音이 하나는 無聲音이고, 다른 하나는 有聲音인 경우 대개 無聲音을 主音(principal element)으로 삼는 것이 普遍音聲學的의 傾向이다(배양서 1979:124).

따라서 無聲파열음 k t p로 시작되는 語形은 有聲파열음 g d b보다 상쾌하고, 우아한 美學的 效果를 주기때문에 여러 表記法(M-R, Lukoff, Yale)에서도 모두 語頭に 無聲파열음 k t p系列만으로 ㄱㄷㅂ을 表記하는 言語學的 근거를 지니고 있다(최현배 1961:693참조).

다음으로 國語의 ‘ㄱ’를 g에 대응시킨 결과 특히 <g+i>에서 g는 [k]音보다 [dz]音으로 발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 Gim, Gimhae, Gimpo, Pyogi, gong-gi 등.

이들은 外國人들에게 각기 ‘짐’, ‘짐해’, ‘짐포’, ‘포지’, ‘공지’등으로 읽혀질 공산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다음의 英語낱말에서 찾아본다.

ex. g [g] : gibbon, giddy, gift, giggle, gild, gill, give, gilt, gimlet, gimmic, ginko, gizzard. etc.

[dz] : giant, gin, Gioconda, giraffe, Gipsy, ginseng, Gill, Gide, Gibraltar, Gibe, gibber. etc.

〈表 11〉

ㄱ=G:	한글	영어	의미	ㄷ=D:	한글	영어	의미	ㅂ=B:	한글	영어	의미
	각	GAG	거짓말		남	(Dam) Damn	벌주다		박	Bag	자루 (ex. Mrs. Bag)
	갈	(GAL) Gall	쓸개집		당	Dang(=damn)	"		반	Ban	금지
	강	Gang	일당		독	Dog (ex. dogrib)	개		반	Bad	나쁜
	갑	Gab	수다		동	(dong) dung	똥		방	Bang	팽
	공	Gong	정		둑	dug	젓통이		북	Bog	수령 우변소
	곱	Gob	침덤어리		둔	dun	빛투촉자		뚬	Bug	레
	군	Gun	총		똥	(dul) dull	둔한		빈	Bin	쓰레기통
	곰	Gum	고무		똥	(dum) dumn	병어리의				
	굴	(Gul→)Gull	사기꾼		둥	dung	똥				

이와같은 <g + i>에서 [dz]이 생기는데 대한 해결방법으로 이명성(1978: 161)과 정인섭(1983:37)은 g와 i 사이에 각기 글자나 符號(h, ')를 삽입함으로써 오해의 要素를 방지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ex. Ghim, Ghimhae, Ghimpo, Pyoghi, gong-ghi or G'im, G'imhae, G'impo, pyog'i, gong-g'i 등.

그러나 이러한 것은 表記의 기본원칙(제1장 제2항)에 어긋나는 것이고, 실제 實用性도 희박하고 이는 다만 'ad hoc'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1音韻1記號(one letter per phoneme)의 原則에 따를 경우 지금까지 여러가지 表記法으로 미루어보아 語頭に 有聲音보다 無聲音계열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왕 國語의 ㄱ의 이야기가 나온터에 ㄱ의 價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본다.

우리 國語의 ㄱ(ㄷ)은 初聲에서 無聲音으로 “경미한 有氣音”(slightly aspiration)이 隨伴되는 [k']음으로 본다. 예컨대 손등을 입가까지 대고 '키'라고 할때 입김이 제일 많이 손등에 와 닿는다. 이와 對照的으로 '기를 달아라'고 할때의 '기'는 '고기'의 '기'보다 입김이 와서 닿는 느낌이 많다.

왜 그럴까? 前者가 後者보다 aspiration으로 因한 [k']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Chomsky & Halle(1963:367)의 SPE(The Sound Pattern of English)에서 國語의 ㄱ(ㄷ)을 가르켜 “경미한 氣음을 띤 폐쇄음(slightly aspirated stops)” 또는 “약한 氣음을 띤 폐쇄음”(weakly aspirated stops)이라고 했다. 그리고 S.E. Martin(1963:367)도 ㄱ(ㄷ)의 變異음이 休止뒤에서는 “경미한 氣음”을 띤다고 했고, ㄱ(ㄷ)은 聲門에서 形成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S.E., Martin(1951:522-523)의 몇가지 表記를 열거한다.

ex. 비(pi), 방(pah), 밥(pap), 고기(koki), 파(pha), 코(kho), 꽃(kqot) 등.

따라서 ㄱ을 k관계로 보면 우리말의 ㄱ/ㅋ의 音素的 對立關係를 나타내는데는 미흡하지만(배양서 1975:128), p p'pp/t t'tt/k k'kk(M-R式)의 3項對立은 外國人의 귀에 모두 [p][t][k]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無聲音 k가 有聲音 g보다 우리말의 ㄱ에 더 가깝다고 본다.

다음으로 >表 10>에서 거센소리 ㄱ(ㄷ)을 MOE 2안(1959)에서 k t p

ch로 表記하고 있다. 有氣音을 사용한 kh th ph chh 방식과 또한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사용한 k't'p'ch'(M-R안)이 있으나 로마字表記의 一般社會用으로서의 目的을 다하려면 符號를 사용하지 않은 MOE 2안(1959)대로 k t p ch가 별 문제가 없겠다.

마지막으로 <表 10>에서 된소리 ㄱㅈㅊㅌ을 MOE 2안(1959)에서 gg dd bb jj에 대응시킨 점이다. 英語에서 二重字(diagraph)가 겹쳐도 된소리는 나지 않는다.

ex. egg, add, ebb.

따라서 區別이 안될바에야 k t p ch가 무난하겠다.

5-2. ㅜ/ㅡ : eo/eu

MOE 2안(1959)의 母音表記中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國語의 ㅜ/ㅡ이다.

다음에 ㅜ/ㅡ에 대해 各 表記法을 對照해 본다.

<表 12>

母音	(1) M-R안	(2) Lukoff안	(3) MOE 1안	(4) Yale안	(5) MOE 2안
(1) 어	ǖ	ø	ǖ	E(ㅈ EY)	EO
(2) 으	ǘ	u	ǘ	U(ㅈ WU)	EU

<表 12>에서 Yale안과 MOE 2안(1959)만이 區別符號(diacritical mark) 없는 表記法을 쓰고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符號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Yale안과 MOE 2안은 ㅜ/ㅡ에서 각기 e/u(ㅈ/ㅈ : ey/wu)와 eo/eu로 表記原則을 充實히 따르고 있는 반면에, 發音에 문제가 있다. 즉 eo/eu表記는 英語使用者에게 어려운 발음이어서 原音과 너무나 동떨어진다.

즉 ㅜ(eo)는 英語에서 [ie][io][ia][eo] 등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은 二重母音을 사용할 경우, 예컨대 '어서'(eoseo)表記에서처럼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이현복 1979: 152) :

(1) 어서(eo/seo)

(2) 에오서(e/o/seo)

(3) 어세오(eo/se/o)

(4) 에오세오(e/o/se/o)등.

이상역(1981:26)은 ㅓ(eo)는 영어에서 [ə]와 비슷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했다.

ex. righteous [rait/fəs], dungeon [dʌndzən]

그러나 people [pí:pl], yeoman [joumən], leopard [lépərd], leonine [liənaɪn] 등에서 처럼 [i:] [ou] [e] [iə]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ㅡ(eu)로 MOE 2 안에서 ㅓ(eo)경우처럼 어려운 흡이므로 영어사용자에게 각기 [iə] [ju] [eu] 등 二重母 흡으로 읽힐 경향이 있다(이상역 1981:30 참조).

ex. adieu [ədju:] eunuch [ju:nək] maneuver [mənú:və]

이것 또한 原音과 먼 발음이다.

이러한 MOE 2 안(1959)에 비해 M-R안, Lukoff 안에서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사용으로 原音에 훨씬 접근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表記는 言語學者에게 필요할지 모르나, 一般社會用으로 쓰이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5-3. 받침과 形態音韻論

(a) 받침 : MOE 2 안(1959)에서 또하나 문제시되는 것은 받침과 몇가지 허용사항만 예시하고 있으나, 그외 받침(ex. ㄱㅅ, ㄴㄱ, ㄴㅍ, ㄴㅌ, ㄴㅈ, ㄴㅎ, ㄴㅇ, ㄴㅈ, ㄴㅎ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다음과 같은 허용사항과 註만을 제시하고 있다.

보 기	A	B
값 이	gabsi	
값 과	(gabsgwa)	gabgwa
옷 이	osi	
옷 안	(os-an)	od-an

※ (주) ㄴ에서 ㅅ외에 ㅆㅈㅊ도 d로 적음.

보기 : '값지' gadji '빛장이' bidjang-i

'꽃과' ggodgwa로 하였다. 즉 '옷'이나 '값'과 같은 것이 뒤에오는 다른 형태소들이 없을때, 다시말해서 단독발음이나 休止앞에서의 경우에 대해서 값(gab:

gabs), 옷(od:os) 등에서 어느 것을 취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어 混亂만을 야기할 뿐이다(이맹성 1979:163).

(b) ㅎ과 ㅍ관련된 表記: MOE 2 안에 허용사항 ‘ㄹ’에 「ㅎ받침은 나는 소리에 가깝게 적는다」라고 하여 ‘좋다’ jodta로 表記하고, 註에는 ㅎ+ㄷ=ㅌ(t), ㅎ+ㅅ=ㅈ(ch)로 表記할 수 있다하여 混亂을 주고 있다. 다시말해서 ㅎ받침이 ㄱㄷㅂㅅ과 더불어 ㄴ경우의 세칙이 없다는 것이다.

ex. 좋고 jodko, joko 말형 madhyeong, mathyeong

(c) ㅍ蓋音化현상의 表記: MOE 2 안의 허용사항 ‘ㅍ’에서 「두형태소사이에 구개음화한 ㄹ, ㄴ이 ㄷ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表記하고 있다.

ex. ‘물약’ mullyak, ‘앞일’ apnil 등.

ㄹ, ㄴ이 ㄷ나는대로 表記하였다. 그러나 ㄷ, ㅌ이 母音에서 ㅅ, ㅈ으로 發音되는 구개음화현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 굳이, 같이, 굳히다, 붙이다.

(d) 子音接變현상의 表記: MOE 2 안에서 子音接變이 일어나는 말들의 表記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이, 正字法原則(이맹성 1979:164-165)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글의 맞춤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연 綴字法대로 表記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리나는대로 적어야 하는지는 한글의 로마字表記 이전인 한글綴字法의 問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現行 한글綴字法과 소리中心의 表記로 귀결되는데 MOE 2 안(1959)은 前者에, M-R 안(1939)은 後者에 속한다. 이中 어느것이 一般大衆性을 띠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外國人에게 우리음에 가까운 것이냐는 後者, 즉 소리中心이어야 한다.

ex. ‘속리산’ (1) Sogli Mt. (MOE 2 안)

(2) Songnisan (M-R 안)

(1)은 現行 綴字法에 立脚한 形態表記이고, (2)는 소리中心, 즉 音韻法則에 따라, “모든 정지파열음은 ㄴ소리와 연결되면 그 ㄴ소리를 닮아버린다”(배양서1975:131)는 一般法則-(Stops = N/-N̄)에 따른 것이다.¹³⁾

13) 박창해(1975:47)의 도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m-	n-	l-	ex. 입문 / ipmun/ > immun
-p	mn	mn	mn	말머느리 / matmyðnuli/ > manmyðnul

ex. '십리'	Sipli ⇒ Simni
'받는다'	Patnunta ⇒ Pannunta
'속리'	Sogli ⇒ Songni

6. 現行 MOE안(1984)의 問題點과 合理的 方案

前章(第五章)에서 M-R안(1939)과 비교해서 MOE 2안(1959)이 과거 25년간 各級學校 教科書, 政府 各部處의 弘報冊字, 地名 및 道路標識 등 多方面에 걸쳐 使用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막상 쓰여져야 할 外國機關, 國內英字新聞(Korea Times, Korea Herald)에서는 MOE 2안(1959) 대신 오히려 M-R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表記의 혼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語文政策의 主要部處인 文敎部에서 지난 1978년부터 國語審議會와 學術院에 개정작업을 위촉, 研究케 했고,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國語의 로마字表記法」의 統一이 國家的 課題로서 各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1984년 1월에 공포하게 되었음을 앞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6-0. 國語의 로마字表記의 基本原則과 概要

MOE 2안(1959)이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MOE 3안(1978)을 거쳐 확정안인 MOE 4안(1979)이--이를 M-R式대로 접근시켜 現行 MOE안(1984)이 나오--나오기까지의 '表記의 기본'의 차이를 비교·검토해 본다(이상익 1982:174-175참조).

1. MOE 2안(1959)의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 ① 한글의 現行 表記法을 로마字式으로 表記한다(正字法).
- ② 로마字 이외의 符號는 加 급적 使用하지 않는다.
- ③ 1음운 1기호의 表記를 原則으로 하되 子音에 있어서는 2기호를 허용

-t	nm	nn	nn	백만 / p'átman / > p'ápman
-k	ŋm	ŋn	ŋn	적려 / Kyðklyð / > Kyðpnyð

ex. '십리'	Sipli ⇒ Simni
'받는다'	Patnunta ⇒ Pannunta
'속리'	Sogli ⇒ Songni

6. 現行 MOE안(1984)의 問題點과 合理的 方案

前章(第五章)에서 M-R안(1939)과 비교해서 MOE 2안(1959)이 과거 25년간 各級學校 教科書, 政府 各部處의 弘報冊字, 地名 및 道路標識 등 多方面에 걸쳐 使用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막상 쓰여져야 할 外國機關, 國內英字新聞(Korea Times, Korea Herald)에서는 MOE 2안(1959) 대신 오히려 M-R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表記의 혼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語文政策의 主要部處인 文敎部에서 지난 1978년부터 國語審議會와 學術院에 개정작업을 위촉, 研究케 했고,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國語의 로마字表記法」의 統一이 國家的 課題로서 各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1984년 1월에 공포하게 되었음을 앞서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6-0. 國語의 로마字表記의 基本原則과 概要

MOE 2안(1959)이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MOE 3안(1978)을 거쳐 확정안인 MOE 4안(1979)이--이를 M-R式대로 접근시켜 現行 MOE안(1984)이 나오기까지의 '表記의 기본'의 차이를 비교·검토해 본다(이상익 1982:174-175참조).

1. MOE 2안(1959)의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 ① 한글의 現行 表記法을 로마字式으로 表記한다(正字法).
- ② 로마字 이외의 符號는 加 급적 使用하지 않는다.
- ③ 1음운 1기호의 表記를 原則으로 하되 子音에 있어서는 2기호를 허용

-t	nm	nn	nn	백만 / p'átman / > p'ápman
-k	ŋm	ŋn	ŋn	적려 / Kyðklyð / > Kyðpnyð

한다.

2. MOE 3안(1978) - '國語의 로마字表記法 개정시안' 中 I.경위 및 개요

4. 개정시안의 특징과 개요

(1) 특 징

- ① 現行 문교부제정 '한글의 로마字表記法'을 근간으로 하여 문세점 또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② 正字法의 원칙을 완화하여 原音과의 유사성과 原語의 환원성을 적절히 고려하였음.
- ③ 로마字 이외의 부호는 ı(ö), ı(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로 함.
- ④ 1음운 1기호의表記를 原則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기호를 허용함.

(2) 개요 : 正字法의 原則을 완화, 原語로의 환원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原音에 가깝게表記함.

3. MOE 3안(1978) II. 國語의 로마字表記法 개정시안(본문)

- ① 國語의 現行表記法에 立脚하여 國語를 로마字로表記하되, 原音과의 유사성과 原語로의 환원성을 고려한다.
- ② 로마字 이외의 符號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③ 1음운 1기호의表記를 原則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기호를 허용한다.

4. MOE 4안(1979)의 '國語의 로마字表記案'

- ① 國語의 로마字表記는 國語표준發音에 따라 적는다.
- ② 로마字 이외의 符號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③ 1음운 1기호의表記를 原則으로 한다.

위 (1~4)가 암시하듯이, (1) MOE 2안(1959)에서 現行 綴字法에 따른 正字法이 (2) MOE 3안 I에서는 正字法의 原則을 완화하여 原音과의 유사성과 原語에의 환원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다. (3) MOE 3안 II에서는 「國語의 現行表記法」에 立脚해서 原音과의 유사성과 原語로의 환원성이라는 절충식을 취하고 있다. (4) MOE 4안(1979)은 종래의 MOE 2안에서 크게 벗어나, 「國語의 표준發音에 따라 적는다」라고 하여 現實發音에 充實히表記하여 M-R式에 完全히 接近한 셈

이다.

그러나 MOE 4안(1979)은 原音에 가까운 發音을 내는 장점이 있으나 「原語로의 환원성」에 問題가 있는데, 이는 M-R式이 안고있는 問題와 一致함을 이미 고찰했다.

이맹성(1978:166)이 지적했듯이, 환원성에 두가지가 相反된 성격이 있다.

첫째는 로마字表記가 소리中心으로 임혀졌을때의 환원성 - 즉 「聽覺的 환원성」(이현복 1979:148)이고, 둘째는 글자中心으로 제시되었을때의 환원성 - 즉 「視覺的 환원성」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두가지의 환원성 문제는 로마字表記의 目的에서 중요한 비중이 되기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表記의 目的과 表記方法이 달라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로 미루어보아 一般社會用으로 「聽覺的 환원성」이 現實發音에 가까운 것이라 生覺된다.

다음에 개정된 MOE안(1984)과 MOE 2안(1959)을 對照해 본다.

<表 13>

區分	改正(MOE)	現行(MOE 2)	區分	改正(MOE)	現行(MOE 2)
원칙	表音主義	正字法			
모 어	Ö	EO	人名	성과 이름순서 이름사이 - ※김정호 Kim chǒng	명문규정 없음.
음 으	Ü	EU			
ㄱ	G	G	행정 地名	-do, -shi, -gun -gu, -up, -myon -ri, -dong	행정구역단위를 대문자로 띄어씀
子 有 日 聲 音 슨 音	D B J	D B J			
ㄷ	K	K	固有 名詞	속리산 Songnisan	Sog ri Mt.
ㄹ 無 日 聲 스 音	T P CH KK TT PP TCH	D B J GG DD BB			
	K'	K	관 용	독도 Tokto	Dog do I
	T'	T			
	P'	P			
	CH'	CH			
(中央日報 1984.1.14 참조)					

〈表 13〉에서 MOE 2 안(1959)은—前章(第 5 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우리 한글 철자법을 充實히 옮긴 表記法이지만, 이를 英語使用國民(English-Speaking people)들이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고 있어 原音과의 發音上 차이가 있는데, 개정된 MOE 안(1984)은 M-R안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몇 가지의 例外구정(8 個項의 表記上 유의점)을 첨가해서 그동안 MOE 2 안(1959)의 어색한 발음 및 의미를 개정·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MOE 안(1984)도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元來 한글의 音韻 체계를 다른 外國語로 옮기는 일이 어려운 작업이고, 100% 完璧한 原音에 가깝게 發音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개정된 MOE 안(1984)에 따른 表記의 例를 열거해 본다(〈表14〉 例를 中心으로 설명한다).

〈表 14〉

한 글	로 마 자 表 記	한 글	로 마 자 表 記
청 운 동	Ch'ǒng - dong	역 촌 동	Yǒkch'on - dong
충 무 로	Ch'ungmuro	충 정 로	Ch'ungjǒngno
을 지 로	Ŭlchiro	천 연 동	Ch'ǒngyǒn - dong
신 설 동	Shinsǒl - dong	창 천 동	Ch'angch'ǒn - dong
답 십 리	Tapshimni	마 포	Map'ó
청 량 리	Ch'ongnyangni	영 등 포 구	Yǒngdǒngp'ó - gu
은 평 구	Ŭnp'yǒng - gu	여 의 도	Yǒūido
청 답 동	Ch'ǒngdam - dong	청 주	Ch'ǒngju
천 호 동	Ch'ǒnho - dong	정 주	Chǒngju

(大韓民國 主要地名의 로마자表記 통계집, 문교부 1984.1 참조)

6-1. ㄱㅈㅊ/스즈ㅈ

첫째로 이미 公布된 MOE안(1984)의 기본원칙(제 1장 제 2항)에 ‘로마字이외의 符號는 되도록 使用하지 않는다’라고 明示되어 있는데도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으로, 예컨대 ‘은평구’ Ünp’yong-gu, ‘충정로’ Ch’ungjǒ-ngno, ‘淸州’ / ‘井州’ Ch’ǒngju / Chǒngju¹⁴등으로 表記되니, 실제 큰 불편-意味의 혼란도 야기함-을 주고 있다. 이와같은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는 인쇄나 타자기등 機械化에 障礙要因이 됨은 물론 글자生活에도 不自然스럽고, 非能率的이다.

로마字表記法이 一般大衆性을 띄기위해서 로마字이외의 符號는 안쓸수록 편리하다. 쓰지않는데서 오는 불편과. 씬에서 오는 편리한 兩面性을 고려해 볼 때 符號를 쓰지않고도 큰 불편이 없다고 한 김충배(1978;81-82)와 같은 의견이다.

둘째로 MOE안(1984)의 기본원칙(제 1장 제 3항)에 “1 음운 1기호의 表記를 原則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ㅂㅈㅊ를 無·有聲音에 따라 p/b, t/d, k/d, ch/j (表 13 참조)로 表記한 것은 한국인에게 有聲·無聲의 변화는 非變別적 變化로 表記의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이맹성 1978;161), 로마字表記의 目的이 우리말을 모르는 外國人들에게 로마字를 빌어 原音에 가능한한 充實하려 하면 대부분의 言語學系 主張처럼 2項對立의 Symbol로 表記함이 마땅할 것이다(배양서 1979:121참조).

세째로 MOE안(1984)의 된소리 ㅂㅈㅊ를 pp tt kk tch로 表記해도 外國人의 귀에는-(二重字(diagraph)로 表記해도)-p t k ch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배양서 1975:128 참조).

따라서 一般用으로의 p t k가 무방하리라 본다.

6-2. ㅛ/ㅡ : ㅝ/ㅜ

MOE 2안(1959)에서 가장 논란의 對象이 되었던 母音이 ㅛ/ㅡ(eo/eu)임을

14) 새 MOE안(1984)에 의한 意味의 混亂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淸州 / 井州(表14)에서 Ch’ǒngju / Chǒngju가 된다. 불가피할때 어깨점(apostrophe)을 생략할 경우 같은 것으로 되고 만다. M-R式으로 表記되고 있는 軍事地圖에 따라 6.25 동란때 공군 조종사가 淸州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잘못 井州에 폭탄을 퍼부었다는 실화가 있다. 이는 區別符號의 혼란으로 야기된 例이다.

언급한바 있었는데, 이러한 發音上의 어색함을 MOE 안(1984)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符號를 도입한 것이 ǒ/ǔ 이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을지로’ Ūlchiro, ‘여의도’ Yöüido, ‘영등포’ Yöngdüngpö 등.

아무리보아도 Ö/Ü符號의 사용이 eo/eu와 비교해 原音에 더 가깝게 發音되는지는 몰라도 역시 外國人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音이고—言語學者에게나 적합하고 一般社會用으로 쓰이기에 복잡하고, 비경제적이다.

앞서에서 누차 강조한바처럼 우리가 目的하는 로마字表記는 한글의 綴字나 文法을 가르치려는 國語教育도 아니요, 또 國語의 正確한 音聲學的 세밀한 音價를 表記하자는 것도 아니요, 다만 外國人이나 韓國人이 읽어서 비슷한 말소리를 알아듣도록 하는데 있다(정인섭 1983:38)고 했다. 그렇다면 이왕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관하자면 ㅜ/ㅠ(o/ö)¹⁵⁾도 o로 統一하고(배양서 1975:35-36), 그리고 ㅡ/ㅝ(u/ü)¹⁶⁾도 符號없는 u로 表記함이 바람직하다고 生覺된다. 왜냐하면 複雜한 符號를 붙여보아도 言語學者가 아닌이상 一般人이 이를 區別못하는 表記는 오히려 어려움만 더 加重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은 必要가 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國語의 ㅐ/ㅑ도 外國人의 聽覺影像에 이를 區別못하고, 어려운 音이므로 e로 들을 가능성이 높다(배양서 1975:129. 정인섭 1983:38. 이현복 1979:160 참조).

사실 內國人인 우리도 ㅐ/ㅑ¹⁷⁾ 차이를 區別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ㅐ/ㅑ/ㅑ는 각기 oe/we/wae로 表記하고 있지만, 外國人의 立場에서 이 3가지 音을 區別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같이 [we]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

15) 배양서(1975:129)에 의하면 國內英字新聞(Korea Times, Korea Herald)에도 이와같은 方式를 채택하고 있다. ex. 홍성철 Hong Song Chol.

16) 배양서(1978:172)에 의하면 국어사전에 약 6,000 단어중 形용사 ‘기쁘다’, 조사 ‘므로’를 제외하고, 모두 순음(lip rounding)은 우(u)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1933년에 나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자어조항中 제 38項에 한자음의 입술소리(순음)를 ㅁ이나 ㅂ다음에 오는 母音은 「으」로 하지않고 「우」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이현복(1979:160)에 ㅐ/ㅑ는 e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外國人立場에서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原音에의 再生능력이 높다.

작된다.(cf. 정인섭 1983 : 38. 이현복 1973 : 87)

6-3. 合理的 方案

MOE 2안(1959)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M-R 式에 가까운 MOE안(1984)이다. 이 案은 現實發音을 고려하여 外國人들에게 自然스럽고, 어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發音中心으로 接近시킨 것이 큰 장점이나, 여기에도 問題點이 있음을 보아왔다. 그리하여 이에대한 필자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 본다.

1) 「國語의 로마字表記」가 그 효율을 期하기위해 우선 二元化 System—^一般社會用과 言語學者用—으로 구분하여 前者는 外國人을 위한 道路標識, 案內標識(板)에, 後者는 言語學術用으로 研究되어야 겠다.

2) ^一般社會用으로 쓰이자면 간편해야 하고 自然스럽고 不便없이 읽힐 수 있는 表記의 目的을 위해 加급적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사용을 배제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a) $\delta/\ddot{u} \Rightarrow o/u$

b) $p' t' k' ch' \Rightarrow p t k ch$

3) a) 子音에서 二重子(diagraph):

$pp tt kk tch \Rightarrow p t k ch$

b) 母音에서

$\uparrow/\uparrow \Rightarrow o, \uparrow/\uparrow \Rightarrow u, \uparrow/\uparrow \Rightarrow e, \uparrow/\uparrow/\uparrow \Rightarrow we$

이와같은(3-a.b)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사용배제와 音의 簡素化로 外國人이나 內國人에게 부담없이 읽는데 어려움을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表記할 수 있다고 生覺된다.

7. 結 論

지금까지 개정公布된 MOE안(1984)의 問題點(現行 Romanization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表記法을 對照分析을 통해 MOE 2안(1959)과 MOE안(1984)의 問題點을 M-R안(1939)과 比較 考察해 보았다. 종래의 各級學校의 英語教科書, 道路

작된다.(cf. 정인섭 1983 : 38. 이현복 1973 : 87)

6-3. 合理的 方案

MOE 2안(1959)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M-R 式에 가까운 MOE안(1984)이다. 이 案은 現實發音을 고려하여 外國人들에게 自然스럽고, 어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發音中心으로 接近시킨 것이 큰 장점이나, 여기에도 問題點이 있음을 보아왔다. 그리하여 이에대한 필자의 의견을 다시 정리해 본다.

1) 「國語의 로마字表記」가 그 효율을 期하기위해 우선 二元化 System—一般社會用과 言語學者用—으로 구분하여 前者는 外國人을 위한 道路標識, 案內標識(板)에, 後者는 言語學術用으로 研究되어야 겠다.

2) 一般社會用으로 쓰이자면 간편해야 하고 自然스럽고 不便없이 읽힐 수 있는 表記의 目的을 위해 加급적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사용을 배제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a) $\delta/\ddot{u} \Rightarrow o/u$

b) $p' t' k' ch' \Rightarrow p t k ch$

3) a) 子音에서 二重子(diagraph):

$pp tt kk tch \Rightarrow p t k ch$

b) 母音에서

$i/\iota \Rightarrow o, \tau/\text{—} \Rightarrow u, \text{ㅓ}/\text{ㅓ} \Rightarrow e, \text{ㅓ}/\text{ㅓ}/\text{ㅓ} \Rightarrow we$

이와같은(3-a.b)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사용배제와 音의 簡素化로 外國人이나 內國人에게 부담없이 읽는데 어려움을 최소한 해소시킬 수 있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表記할 수 있다고 生覺된다.

7. 結 論

지금까지 개정公布된 MOE안(1984)의 問題點(現行 Romanization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表記法을 對照分析을 통해 MOE 2안(1959)과 MOE안(1984)의 問題點을 M-R안(1939)과 比較 考察해 보았다. 종래의 各級學校의 英語教科書, 道路

標識, 交通案内標識 등은 우리韓國人의 便宜로 쓰이다보니 表記上 여러가지 視聽覺的 立場에서 어색하고, 言語美學的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못해 그 代案으로 外國人의 現實發音에 附合되면서도 그들의 語感에 친근감을 주는 M-R式에 가까운 MOE안(1984)이 公布되었으나, 여기에도 問題點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필자는 Koreanization 이나 Romanization 모두가 우리의 音韻體系를 다른 外國語로 옮기는 것이므로 어느것도 完璧한 表記法이란 거의 不可能하다고 여기면서 一앞으로 만족스럽고, 간편하고,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案을 기대하면서 一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 로마字表記의 目的은 外國人들의 便宜에 의해 시작되었고, 따라서 그들 위주의 發音表記가 되어야 하겠다.

(2) 로마字表記의 歷史的考察에 비추어 보아 現行 MOE 안(1984)의 子音中 p' t' k' 는 불어계 Imbault-Huart 에서, 英語系 Scott, Baird, Gale, 및 獨語系 Gabelentz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母音 ö/ü 는 Eckard에서 유래되었다.

(3) MOE 2안(1959)의 문제점으로 한글맞춤법에 立脚한 形態音韻表記를 하다보니, 原音과의 乖離現象이 있었다.

(4) 現行 MOE안(1984)은 原音에 가까운 M-R式에 따르고 있으나 區別符號(diacritical mark)의 使用으로 어려운 發音을 야기시켰다:

(5) 이와같은 解消方案으로 필자의 意見을 提示해 보았다.

5-a) 二元化 System 一一般用과 專門用一을 제시한다.

5-b) 區別符號(diacritical mark)는 될수록 排除하고, 英字化(Anglicization)되어야 한다.

: ö/ü ⇒ o/u. p' t' k' ch' ⇒ p t k ch

5-c) 發音中心으로 簡素化되어야 한다.

5-c-a) 子音 kk tt pp tch ⇒ k t p ch

5-c-b) 母音 ㅏ/ㅡ ⇒ o ㅓ/ㅡ ⇒ u

ㅑ/ㅓ ⇒ e ㅕ/ㅓ ⇒ we

이상과같이 필자의 私見을 提示해 보았다. 로마字表記의 目的이 外國人을 위한 것일진대, 自然스럽고 간편하고 區別符號가 없는 一般社會用的 表記가 道路標識, 觀光案内標識 등에 하루속히 英字化(Anglicization)로 表記함으로써 外國人들이 國內旅行함에 있어 表記로 因한 어려움을 解消시켜야 할 줄 믿는다.

參 考 文 獻

- 문교부(1959).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1972). 대한민국 主要地名一覽表
(1978). 국어의 로마字表記法 개정시안
(1979). 국어의 로마字表記法案
(1984). 대한민국 主要地名의 로마字表記 용례집
- 배양서(1971). 「한국어 음운론의 논쟁점 몇 가지」, 한글학회 50 돌 기념논문집 pp.47-68.
(1975). 로마字化와 英字化, 명지대논문집. No.8
- 배양서(1976). 言語接觸理論에서 본 한글의 英字化, 영어교육 12. pp. 29-37
(1978a). 外來語表記의 原理, 국어순화와 교육, 정신문화원 165-185
(1978b). Normanization of Romanization, Korea Times No.2
(1979). "外來語의 한글化" 및 "국어의 로마字化" 시안비판, 영어교육 17호. pp. 117-25
- 이맹성(1978). 문교부제정 "한글의 로마字表記法" 검토연구, 서울사대논총 9. pp. 155-70
- 이상억(1981). 국어의 로마字表記法문제 종합검토, 외대언어와 언어학 7. pp. 9-42
(1982). 한국어 로마字表記 '82, 언어제 17권 제1호 pp. 165-198
- 이현복(1979). 로마字表記法 개정시안의 문제점, 연세대 말 4. pp. 145-64
(1981). 한국어의 로마字表記法, 대한음성학회, 말소리 3. pp. 16-24
(1983). 로마字表記法の 音聲學的 실상과 허상, 말소리 6月號 pp. 28-33
- 이강훈(1975). 한글의 로마字表記, 서울여대논문집 No.4, pp.127-143.
- 이규호(1976). 言語와 社會와 思惟, 신동아 9月號 pp. 99-104
- 안호삼(1957). "우리말 로마字表記法에 관하여", 영어영문학 4號 pp. 28-33
- 김민수(1973). 國語政策論, 고려대 출판부

- (1976). 國語問題의 現段階, 新東亞 9月號 pp.90-97.
- (1978). 外來語表記에 대한 反省과 문제점, 국어순화와 교육, 정신문화연구소. pp. 147-163
- 김충배 (1978). 우리말의 로마字表記 問題,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pp. 71-85
- 최현배 (1942). 한글갈, 정음사. pp. 748-69
- (1961). “ 문교부제정의 한글을 로마字 삼기와 한글삼기에 대한 비평”, 국어국문학 24號 pp. 78-87
- 東亞日報 (1984). 東亞日報 人名別冊, 東亞日報社.
- 유만근 (1985). 표준한국어 정밀표음 로마字 맞춤법 연구, 제 10 권 1호. pp.171-202
- 한글학회 (1984). 한글맞춤법, 붙임 : 우리말 로마字적기 pp. 85-96
- 정인섭 (1973). 한글Romanization의 歷史的 高찰, pp. 302-317
- (1983). 가장 실용적 로마字案, 말소리 6月號. pp. 35-40
- 鄭準昌 (1982). 국어의 로마字표기 改正案과 그 바람직한 方向, 「말과 글」, 제 1~15호, pp.312-314.
- 김기중 (1982). 한글의 로마字表記問題, 「말과 글」, 제 1~15호, pp.315-319.
- 조병국 (1977). 한국外來語表記와 한국의 로마字表記에 關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pp. 3-105
- 허 응 (1979). 國語音韻學. 정음사
- 姜信泣 (1983). 外來語의 실태와 그 수용대책, 한국語文의 諸問題. pp. 116-191
- Chomsky &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H.F. Cook (1972), McCune-Reischauer Widely Accepted Used, Korea Times, April 23
- Kim Duck-Hi (1972), Unified System Needed in Romanization Used, Korea Times, April 12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Ltd.
1978.

Lukoff, Fred (1945), Spoken Korean, Basic Course 2 Vol. New York:
Henry Holt Vol.1.

McCune & E.O. Reischauer (1939),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29, pp.1-55

S.E. Martin (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7, pp.519-33.
(1968), "Korean Standardization": Problems, Observa-
tions and Suggestions, Ural-Altäische
Jahrbücher 40:85-114

Park Chang-Hai (1961), An Intensive Course in Korea: Book 1,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Rutt, R(1972a), "About the Romanization of Korean", Korea Journal,
Vol.29, pp.20-25

(1972b), Goven't method lacks practical purpose, Korea
Times, April 23, p.3.

Underwood, H (1972), On the Ministry's Romanization System, Korea
Journal, Vol.12, No.5, pp.26-28.